

정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동 목록 시스템 활용 방안

- 국내 도서 정리 업무를 중심으로 -

박 년 수
(주)이지막 대표이사
ezmarc@ezmarc.com

목차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배경
 - 2. 연구의 한계점
- II. 정리 업무 형태의 변천
- III. 해외 공동 목록 DB
 - 1. 미국
 - 2. 일본
- IV. KERIS 종합목록
 - 1. 소개
 - 2. 이용과정
 - 3. 장점 및 단점
- V. 국립중앙도서관 KOLIS-NET
 - 1. 소개
 - 2. 이용과정
 - 3. 장점 및 단점
- VI. ezMARC 종합목록 (KESLI-STIMA 종합 목록)
 - 1. 소개
 - 2. 서비스 개요
 - 3. 이용과정
 - 4. 장점 및 단점
 - 5. 공동 목록 시스템 비교
- VII. 결론 및 제언

I. 서론

도서관의 정리 업무는 전통적으로 사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고유하고도 핵심적인 업무로 인식되어 왔다. 입수된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교하게 조직하는가 하는 것은 사서의 고민이자 한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정리 업무가 도서관의 업무아웃소싱을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다. 이는 속도와 비용과 효율을 추구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흐름에 도서관도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도서관의 대내외적인 환경은 도서관 정리 업무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자관 Original cataloging을 고집하는 도서관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OCLC, NII 등 해외 DB, KERIS 종합목록, KOLIS-NET 등의 국가 공동 DB 등을 활용하는 방안, 도서와 함께 제공되는 상업적 유통 DB를 활용하는 방안, 나아가 정리업무의 부분 및 완전 아웃소싱 방안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정리 업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동 목록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공동목록¹⁾은 둘 이상의 도서관이 공동으로 소장하는 도서에 대하여 기입을 한 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요한 공동목록을 들자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가 각 단위 대학의 소장자료를 검색 및 반입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목록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개발한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이하 KOLIS-NET), ezMARC 종합목록(KESLI-STIMA 종합목록)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공동목록 시스템의 비교를 통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 및 우리나라 공동목록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목적 및 배경

단위 도서관이 목록을 작성하는데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각각의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을 공유하여 이들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가적으로는 중복업무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모색이 있어 왔다. 공동목록작업도 그 일환으로, 주요한 공동목록시스템으로는 KERIS 종합목록, KOLIS-NET, ezMARC 종합목록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서지개념의 공동 목록 시스템은 10년 남짓한 짧은 역사와 원자재(도서) 확보의 복잡성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서관에서 공동 목록 시스템을 정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전

1)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http://203.241.185.12/asd/main.cgi?board=Dic&ryal=2&view=2&back=&search=+%B0%F8%B5%BFB8%F1%B7%CF&where=1&how=1>

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공되는 데이터가 신속히 갱신되고 있는가 (데이터의 신속성)

둘째, 제공되는 데이터의 질(Quality)이 우수한가 (데이터의 정교성)

셋째,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편리한가 (이용의 편의성)

이렇게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세 기관의 공동목록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서 정리의 중요 Tool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2. 연구의 한계점

공동목록 사용에 대한 도서관 현장사서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와 심층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인터뷰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문헌연구와 실제 사이트 이용 경험 분석만을 하였다.

또한 KERIS 종합목록과 KOLIS-NET은 분담편목인데 반하여 ezMARC종합목록은 중앙집중식편목으로 목록구축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동일 요소비교에 있어 연구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II. 정리업무 형태의 변천

정리 업무는 도서관의 핵심업무이자 사서의 전문적 영역이라는 인식 속에서 단위도서관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목록을 구축하여 왔다. 이른바 정보화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에 속도의 개념을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입수로부터 이용자에게 이용되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었던 상황이 불과 십여년 전 도서관 상황이었다. 해외도서관에 대한 정리 Tool로서 Cat CD와 Bibliofile 등이 오프라인 형태로 이용되었고, 소급자료에 대하여 가끔 외부용역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IMF를 전후하여 급격히 시작된 도서관 환경변화는 정리 업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도서관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정규직 직원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직원이 정리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서지를 통해 도서관 정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KERIS와 국립중앙도서관들의 노력도 시작되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은 상업적인 유통MARC이 등장한 것이다. imarc 서비스로 시작된 유통MARC은 외부 MARC DB에 대한 사서의 거부감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에 끼워주는 형태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도서납품시 MARC DB를 함께 납품하는 형태의 모델은 도서유통시장에도 파장을 가져와 군·소 서점들의 도서납품을 위해 MARC DB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저가데이터, 질 낮은 데이터가 범람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지금도 도서와 MARC DB를 함께 받아 정리 업무를 해결하는 도서관들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판정을 받음으로서 내년부터는 중단될 것으로 보여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서관의 새로운 고민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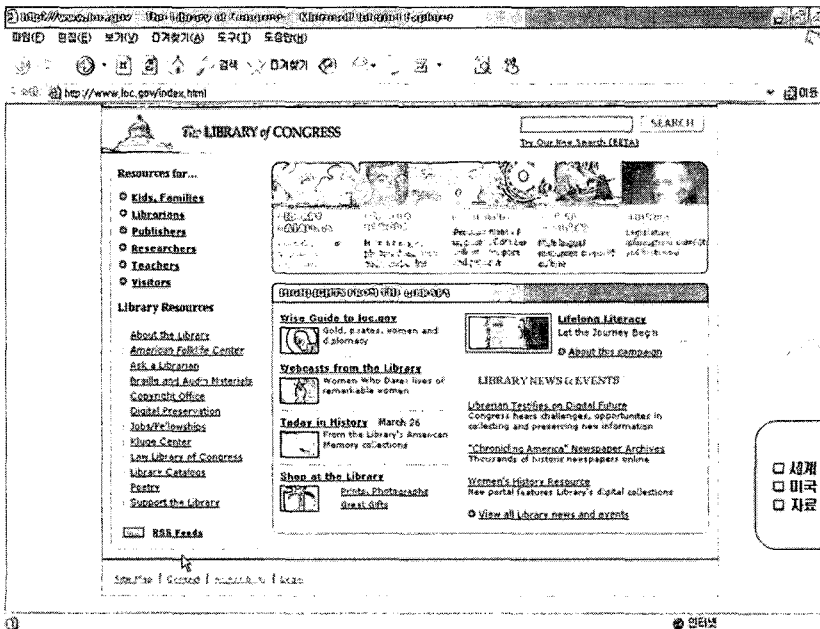
한편 정리업무의 부분 및 완전 아웃소싱이 찬반 속에 논의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소수의 도서관들에 그치고 있으나 비정규직 법안통과와 맞물려 향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입찰방식으로 무자격자가 저가수주를 하게 되어 데이터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서관계의 정리 업무에 대한 혼란이 거듭되고 있어 공동목록을 이용한 문제해결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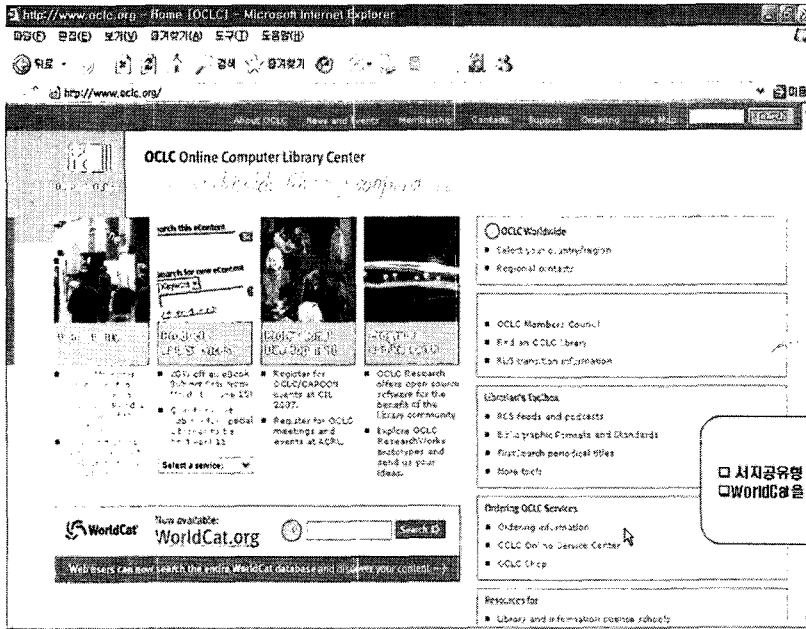
Ⅲ. 해외 공동 목록 시스템

1. 미국

1) LC(미국국회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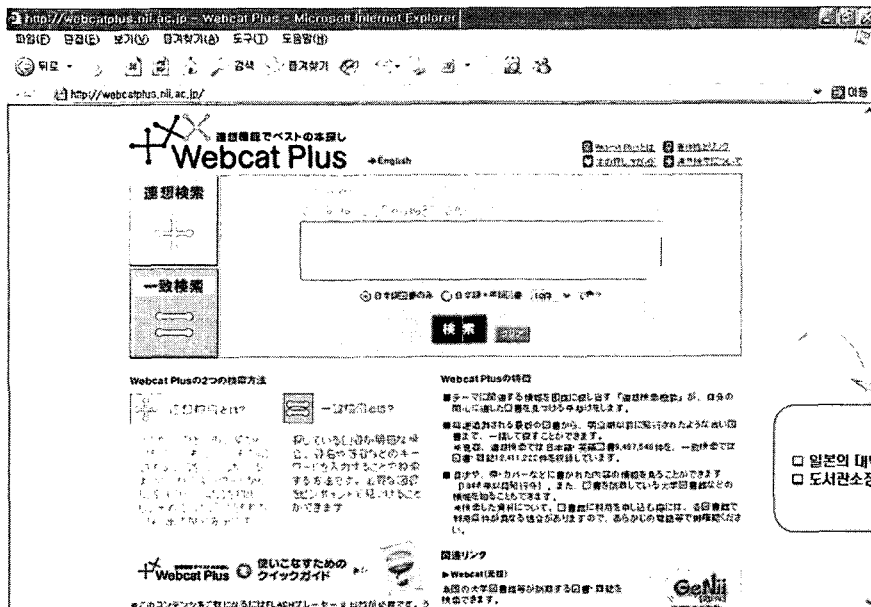


2) OCL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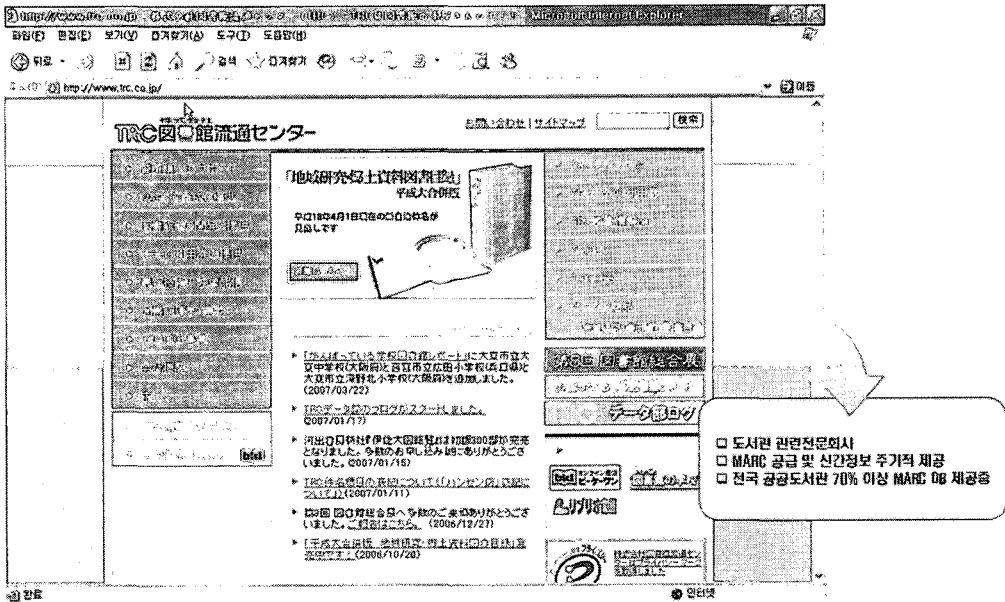


2. 일본

1) NII(일본 대학간 공동목록)



2) TRC(일본 도서관 유통센터)



IV. KERIS 종합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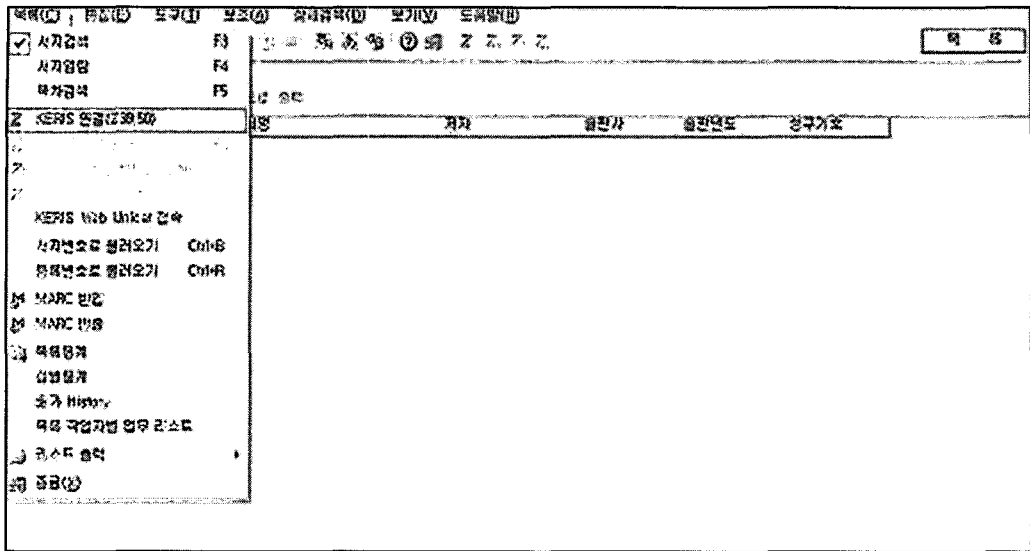
1. 소개

1997년에 시작되어 1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KERIS 종합목록은 대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구축한 DB를 약 776만건(2006년 기준) 이상 소장하여 대학도서관들이 편목작업에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하여 KERIS 종합목록 입력 지침을 작성하여 각 단위 대학도서관에 배포하는 등 국가 서지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이용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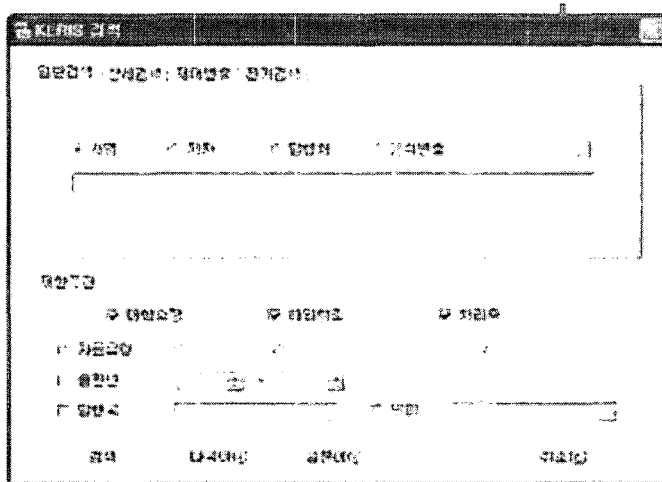
각 단위도서관의 목록구축시스템에는 'KERIS 연결'이라는 메뉴가 따로 설정되어 있어 편목업무시 KERIS 연결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자관의 DB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단위도서관의 목록구축시스템을 실행 한 후 'KERIS 연결'을 실행한다.



<그림 1> 연결화면

그 후 편목업무 대상을 검색한다. 검색방법으로는 서명, 저자, 발행처, 인식번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검색 할 수 있는 일반검색과 몇 가지 검색옵션을 설정 한 후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정도를 높이는 상세검색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주로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제어번호와 전거 검색 등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검색화면

예를 들어 '세월의 돌'이라는 자료의 DB를 검색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각 단위 도서관은 자관의 편목규정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선택 한 후 자관의 DB로 반입하며 자관의 규정에 맞는 수정작업을 다시 실행하여야 한다.

순번	제목	저자	발행처	발행년	자료유형	소유	상태	비고	사지번호
1	미학 서양의 D . 3	김연희	지음/김오승	1999	단행본				725390
2	미학 서양의 D . 2	김연희	지음/김오승	1999	단행본				725390
3	미학 서양의 D . 1	김연희	지음/김오승	1999	단행본				725394
4	미학 (권민회 출판소점) 서양의	김연희	지음/김오승	2000	단행본				7504420
5	미학 (권민회 출판소점) 서양의	김연희	지음/김오승	2000	단행본				7504421
6	미학 서양의 D : 권민회 판권지	김연희	지음/김오승	2000	단행본				7521387
7	미학 (권민회 출판소점) 서양의	김연희	지음/김오승	1999	단행본				7651381
8	미학 (권민회 출판소점) 서양의	김연희	지음/김오승	1999	단행본				7651382
9	미학 서양의 D . 5	김연희	지음/김오승	1999	단행본				7651377
10	미학 서양의 D . 4	김연희	지음/김오승	1999	단행본				7651378
11	미학 (권민회 출판소점) 서양의	김연희	지음/김오승	2000	단행본				7771400
12	미학 (권민회 출판소점) 서양의	김연희	지음/김오승	2000	단행본				10061478

〈그림 3〉 검색결과

3. 장점 및 단점

KERIS 종합목록은 앞서 말했듯이 10년 동안 구축된 자료를 약 770여만 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DB 양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또 학위논문과 외국자료에 대한 DB도 구축되어 있어 자료의 다양성 역시 국내 최상위권이다. 이를 통해서 각 단위도서관은 편목을 위한 보조도구로 이 KERIS 종합목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KERIS 종합목록은 분담편목방식으로 어느 한 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만 다른 회원 도서관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즉 자료의 최신성에 있어 기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실제로 KERIS 종합목록에서 검색을 해보면 2007년에 발행된 자료 중 최신 1개월 내 발행된 도서에 대해서는 망라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표 1. ezMARC종합목록대KERIS종합목록 비교표).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신간자료에 대해서는 직접 편목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또, 데이터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있다. KERIS 종합목록 입력지침이 각 단위도서관에 배포되었지만 실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마다 사용하는 기본규칙이 다르고 편목담당자마다 목록규칙의

해석과 적용이 다양하므로 KERIS 종합목록에 업로드되는 DB 역시 다양화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A대학 도서관은 저자명기본기입을 사용하는데 비해 B대학 도서관에서는 서명기본기입을 사용할 경우, A도서관의 DB는 100태그가 기본기입인 반면 B도서관은 245태그가 기본기입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경우처럼 기본 규칙상에서의 상이점으로도 DB 구성상에 큰 차이점을 보이지만 실제 세부 규칙 적용에 있어 모두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다르다면 결국에는 DB의 구성이 자관의 표준화와는 충돌될 수 있어 자관에 맞는 수정작업을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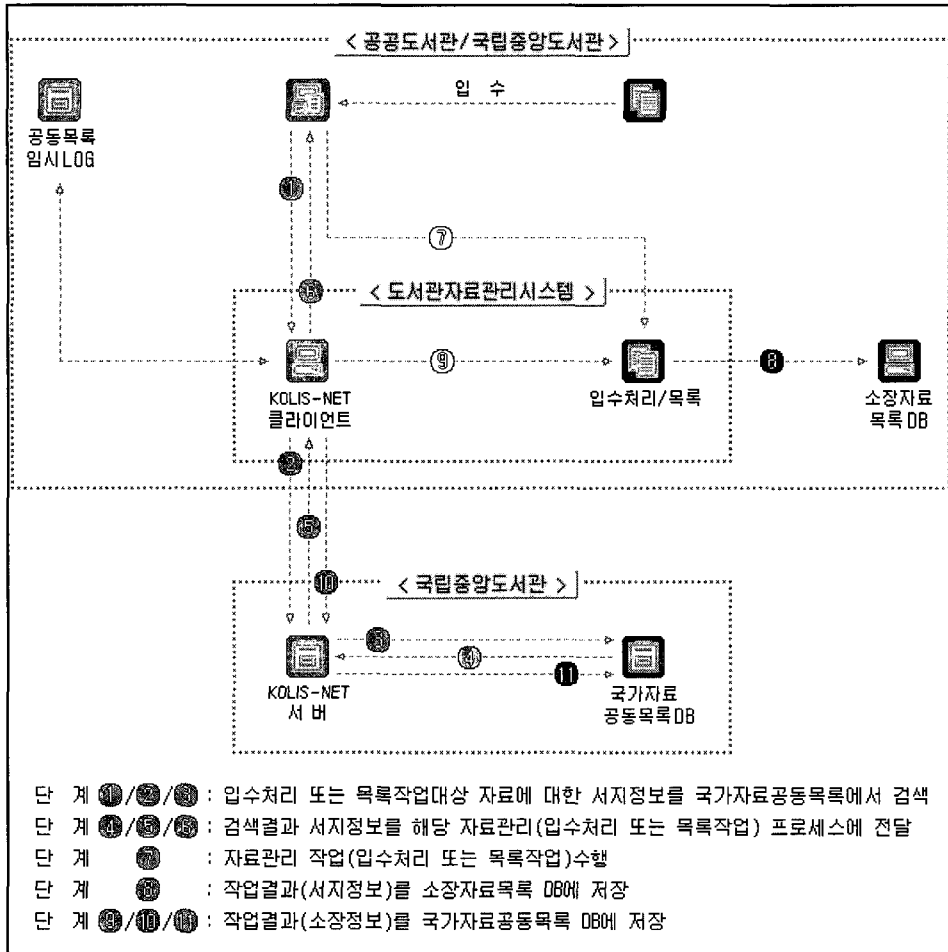
다음으로 데이터의 중복성이 높다.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각 단위도서관마다 자관의 규정에 맞는 데이터를 올린다면 하나의 자료가 수십개의 중복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 중복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수백만 건이 넘는 중복데이터를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기계적인 장치로는 발견할 수 없는 레코드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중복데이터를 완전히 필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완전성에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국내 도서관이 사용하는 분류번호는 KDC4판, DDC21판, DDC22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KDC4판을 사용하는 도서관이 레코드를 우선 업로드했다면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들은 분류를 다시 해야 한다. 또 띄워쓰기라든지 오자나 탈자, 태그의 잘못된 적용, 들어가 있어야 할 값을 채우지 않는 경우 등 DB의 완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국립중앙도서관 KOLIS-NET

1. 소개

'KOLIS-NET'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전국의 526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900여개 이상의 도서관과 기관, 서점이 활용하고 있는 소장 자료 통합 데이터베이스이자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네트워크로, 서지 데이터베이스가 540만 건, 소장 데이터베이스가 2,000만 건인 KERIS에 이은 국내 최대의 도서 데이터베이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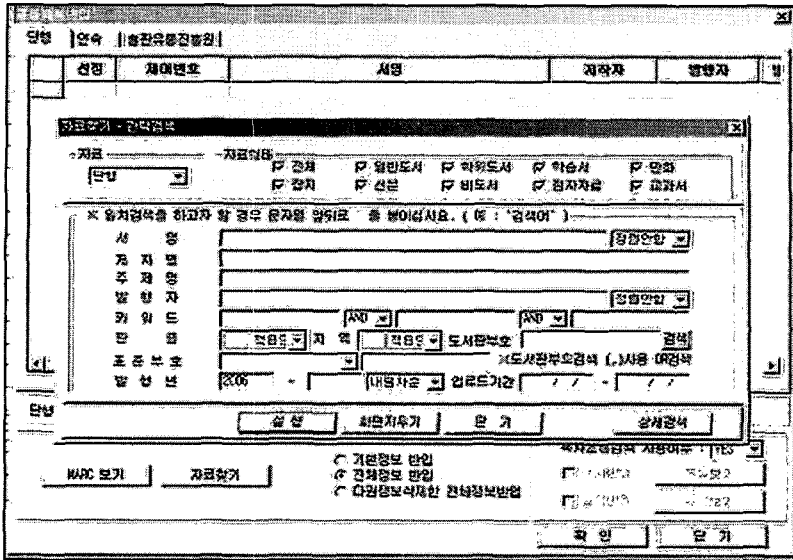


〈그림 4〉 업무흐름도(목록 작업 개념도)

2. 이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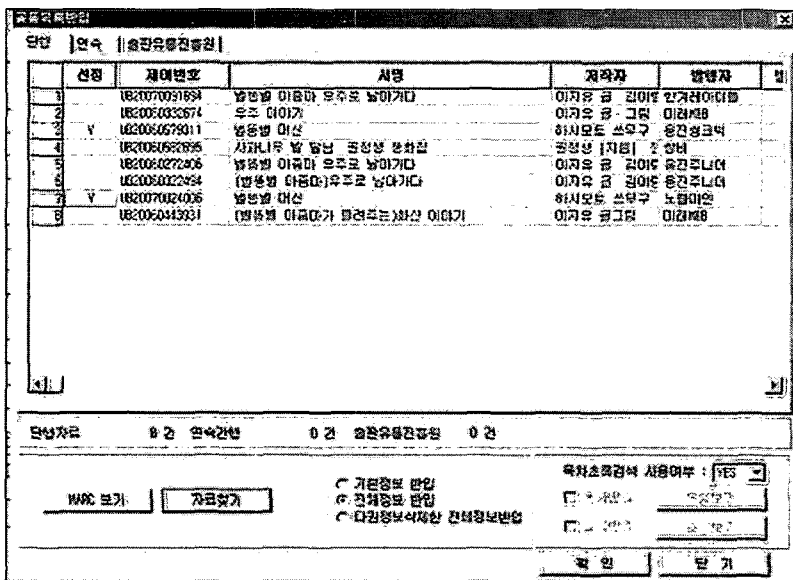
공공도서관이 사용하는 목록구축시스템인 KOLASⅡ에도 ‘국가목록공동반입’이라는 메뉴가 따로 설정되어 있어 편목업무시 KOLIS-NET 연결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즉시 자관의 DB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KOLASⅡ의 반입메뉴에서 ‘국가목록공동반입’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자료찾기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림 5> 검색화면

만약 '별뿔별'이라는 자료가 편목 대상이라면 각각의 검색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 한 후 여러 결과 중에서 자관의 규정과 가장 일치하는 레코드를 선택하여 반입하고 자관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6> 검색결과

3. 장점 및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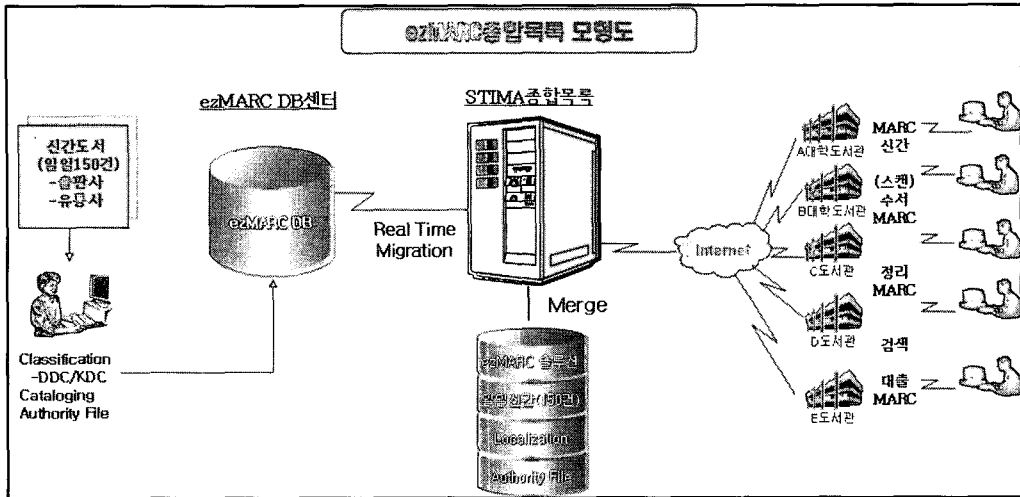
KERIS 종합목록과 같은 분담편목방식이므로 장점과 단점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상당수가 자료 구입과 동시에 해당자료의 DB를 납품받는 아웃소싱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일부 도서 납품처에서 도서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작업자에게 DB를 생산하게 하여 검증되지 않은 DB가 도서관에 공급되고 있다. 이때 도서관의 철저한 교정 작업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직원중 정리담당이 태부족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DB가 아무런 제재 없이 KOLIS-NET에서 공동목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즉 질 나쁜 DB가 모든 공공도서관에 제공되어 당초 계획한 질높은 DB의 공유는 이루어지기 곤란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VI. ezMARC 종합목록 (KESLI-STIMA 종합 목록)

1. 소개

ezMARC 종합 목록은 국내 최초로 상업적인 유통 MARC 시대를 열어 150여개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MARC DB를 공급했던 iMARC 서비스를 모태로 하여 신속하고 정교한 DB공급으로 도서관의 정리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균일한 고품질 DB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공동목록과의 차이점은 유료화된 상업적 DB이며 정리 업무뿐만 아니라 수서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Tool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분담편목이 아닌 중앙집중식편목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005년도에 서비스 방법에 대한 특허(특허 제0537058호)를 취득하고 데이터의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ISO9001(인증번호: RQM3104)을 인정받았다. 2007년도에는 KESLI-STIMA 종합 목록 서비스로 채택되어 400개 KESLI 회원 도서관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2. 서비스 개요



3. 이용과정

먼저 www.ezmarc.com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My Library에서 각 단위도서관에 맞는 옵션을 설정한다. 이 기능은 앞서 소개한 두 가지 공동목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기능으로 표준 MARC에서 자관 적용을 함으로 레코드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일관된 규칙에 의해서 하나로 작성된 레코드를 각 단위도서관에 맞게 변형하는 작업으로 표준화와 고객맞춤을 동시에 실천하는 시스템이라 하겠다.

KDC DDC21 DDC22 기타
 국내도서 편목시 MARC 유형은? KORMARC USMARC
 국내도서 편목시 기본기입은? 저자기본기입 서명기본기입
 국내도서 편목시 로컬태그(9XX) 사용유무? 사용함 사용안함

국내도서 편목시 목록기입규칙? KORMARC KCR3 AACR2 ISBD KCR2 기타1 기타2

국내도서 편목시 저자기호? 우선적용 사용안함 장일제 Eford 미재철

식별기호와 데이터사이 Space처리?

데이터와 식별기호사이 Space처리?

서양 번역서-원저자명(507\$a)

중,일 번역서

언어?

시리즈 도서?

메모내용

MARC 다운로드위치? 다운로드 할 때 사용자지정

MARC 다운로드 파일 확장자? (입력예) mac ==> downloadfile.mac

번호	항목명	태그지정/조건	변환태그 지정	설명
1	태그삭제	040:049:056:085:600:650:99		
2	태그생성	040##\$a211042\$c211042		
3	태그생성	090##\$a<082\$a>		
4	태그이동	950\$b	020\$c	
5	태그삭제	950\$c		
6	태그삭제	700\$a:710\$a:711\$a		
7	태그변경	245\$c	245\$b	
8	데이터변환	300\$b천연색삽화	채색삽도	
9	데이터변환	300\$b삽화(일부천연색)	일부채색삽도	
10	데이터변환	300\$a전자 광디스크	CD-ROM	
11	데이터변환	300\$a(4.75인치)		
12	데이터변환	300\$b삽화(주료천연색)	주료채색삽도	
13	데이터변환	300\$a녹음 카세트	카세트테이프	
14	데이터변환	505\$t --		
15	데이터변환	505\$d --		

〈그림 7〉 옵션설정화면

이 작업이 끝난 후 자료를 검색하면 되는데 검색방법은 위 두 가지 공동목록보다는 단순하다. 바로 책 뒤에 있는 ISBN 바코드를 이용하는 것인데 바코드리더기를 통해서 ISBN을 입력하는 기능이다. 이것의 장점은 오류 없이 적합한 책과 서지를 정확히 매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물류의 개념을 적용하므로 서지작업능률이 월등히 높다. 또한 ISBN이 자료의 고유한 번호이므로 자료검색시 데이터의 중복은 거의 없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search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n ISBN input field and a status indicator 'Status: 검색됨'. Below this is a search box labeled '대검색 ISBN'. The search method is set to '키워드' (Keyword). There are fields for '서명' (Title) and '저자' (Author), with an 'AND' button. A '출판연도' (Publication Year) field is also present. A note states: 'ISBN 검색시에는 출판연도 제한검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When searching by ISBN, the publication year restriction search is not applied). There are 'Search' and 'Clear' buttons. Below the search area, there are checkboxes for '검색결과삭제', '다운로드', '장바구니저장', '대중석도서관요청', and 'MARC'. The '출력건수' (Output Count) is set to 10. The search results show a list of records, with the first one selected: '(에스더의) 싸이언스 데이트, 2 / Vermeulen, Frank / 예가람 / 2007'. The record details include fields like 'kcam k 070402s2007 ulk 901af kor', '007 te', '020 ▼a9788995854051', '020 ▼a9788995854037(세트)', '020 ▼a8995854057 ▼g04420 ▼c W14500', '040 ▼a211042 ▼c211042', '041 1 ▼dkor ▼hger', '062 ▼a633.92 ▼a530 02 ▼221', '090 ▼a633.92', '100 1 ▼aVermeulen, Frank, ▼d1964-', '245 20 ▼a(에스더의) 싸이언스 데이트: ▼b소셜로 만나는 물리학의 세계 ▼n2r ▼d프랭크 페어모일 연 지음; ▼e김한균 옮김', '260 ▼a서울: ▼b예가람, ▼c2007', '300 ▼ap 423-613; ▼c22 cm', '500 00 ▼a완결임', '500 00 ▼a권말에 색인수록', '500 00 ▼z감수자: 최원호', '507 10 ▼fMijnheer, Albert : roman over de gedachte-experimenten van Einstein', '700 1 ▼a김한균', '900 1) ▼a페어모일렌, 프랭크'. A '다운로드' (Download) button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of the record details.

〈그림 8〉 검색화면

검색 후 다운로드 하면 MARC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되며 그 후 목록시스템에 반입하여 등록 번호와 저자기호전개 등 도서관 정리업무의 고유 업무만을 수행하면 정리업무가 마무리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4. 장점 및 단점

ezMARC종합목록은 중앙집중식편목으로 하나의 레코드를 생성한 후 각 단위도서관에 맞는 형태로 자동 변환해줌으로 DB생산에 있어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선 두개의 공동목록이 자료 검색 후 자관에서 가장 유사한 DB를 선택 한 후 다시 자관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대폭 줄인 것이다.

또한 데이터의 신속성이 유지된다. 2007년 최신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직접 DB를 구축하여 하루

에 약 140여종의 책이 갱신되고 있으므로 단위 도서관이 DB를 올려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유지된다. ezMARC종합목록의 DB는 평균 4년 이상의 목록 및 분류 경력을 지닌 전문 사서들이 일정한 지침 아래 DB를 작성하고 있으며 KDC4판, DDC21판, DDC22판의 분류번호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또 3번 이상의 교정 작업을 거치므로 DB의 정확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각 단위도서관은 도서관의 목록작성 규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옵션을 설정하면 언제나 균일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수서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위 두개 종합목록이 목록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ezMARC 종합목록은 도서관 업무의 시발점인 수서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신간도서검색 기능이 있어 최근에 발행되어 DB까지 생성된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엑셀형식으로 다운로드하여 주문서 작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수서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ezMARC종합목록은 DB구축 대상을 2006년,2007년 단행본 신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급DB나 학위논문, 비도서등에서는 취약한 면이 있다. 또한 초기 옵션 설정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규정으로 초기설정할 경우 데이터의 균일성과 질에 있어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또 기계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 없는 레코드의 내용이 존재하므로 일부 수정작업이 필연적이며 이상의 두기관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임에 비해 유료인 점도 단점으로 들 수 있다.

5. 공동 목록 시스템 비교

이상 살펴본 공동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ERIS 종합목록	KOLIS-NET	ezMARC종합목록
주요서비스대상		대학도서관 (회원제)	공공도서관 (회원제)	대학, 공공, 특수·전문도서관 (회원제)
접근형태		프로그램 연동	프로그램 연동	인터넷 사이트 접속
DB구축방식		분담편목	분담편목	중앙집중식편목
서비스자료		단행본, 회색문헌 등	단행본, 회색문헌 등	단행본
서비스내용	목록	○	○	○
	수서	×	×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용이 소장정보제공 자료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용이 소장정보제공 무료 자료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DB 다운로드의 편이성 DB의 신속성 유지 DB의 일관성 유지 수서업무의 효율성 증대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성 결여 일관성 부족 중복성 높음 완전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성 결여 일관성 부족 중복성 높음 완전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연동개발이 필요 DB의 아카이빙 기능 부족

ezMARC 종합목록은 KERIS종합목록과 KOLIS-NET에 비교해 볼 때 MARC DB의 갱신 속도가 신속하고 품질이 고르게 유지되며 DB의 획득과정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국내 신간도서 정리에 유용한 서비스이다.

한편 도서관 프로그램과의 연동 개발과 회색문헌 등 다양한 자료의 제공 등이 향후 해결과제로 보인다. KERIS종합목록과 KOLIS-NET은 소급자료 DB의 아카이빙기능과 소장정보 제공, 다양한 자료의 DB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다.

Ⅶ. 결론 및 제언

도서의 정리 업무는 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하고 전문적인 업무라고 하는 이론적인 당위성과는 달리 실제 이중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서관의 핵심업무이면서도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단순 업무가 되었고 데이터의 품질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값싸고 무료로 쓸 수 있는 DB를 선호한다. 나아가 데이터의 품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당당한 의견들도 보인다. 도서관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서 정리 방안을 모색해 볼 때 각 단위 도서관의 실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공동 목록 시스템을 개선 발전시켜 활용하는 방안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동목록시스템은 아직까지도 그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다. 이미 사용되고는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도서관 현장에서는 그 유용성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공동목록의 본래 취지인 반복적인 편목업무에서 사서의 부담을 줄이고 자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이 요구된다.

공동목록에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도서관에서는 국가서지목록의 최종검수자로서의 역할로서 양질의 서지DB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수서부문과의 적극적인 유대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을 구현해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상에 설명한 목록업무의 공유에 있어 이용자측 즉, 도서관에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최대한 검토하고 자관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제공되는 공동목록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기, 이수상. 2006. KOLIS-NET의 시스템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 261-277.
- 노지현, 이수상. 2006. 분담편목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인식과 참여: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195-215.
- 윤정옥. 2004. 대학도서관 편목 업무 외주의 동향과 논쟁.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119-135.
- 이제환. 2002. 공동목록 DB의 품질평가와 품질관리: KERIS의 종합목록 DB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1): 61-87.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riss4u.net/index.jsp>
-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index.php>
- ezMARC종합목록. <http://www.ezmarc.com/ezMARC/>